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전현희 국회의원을 만나다

막바지 겨울 추위가 극성을 부렸던 지난 2월, 우리 협회 이사로 재직하시면서 에이즈 혈우병 환우를 위한 소송을 무료로 맡아주시면서 에이즈 감염인의 어려운 삶을 보듬어 주는 일에 앞장서 주시다가 작년에 국회에 등원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을 만났다. 이제 더 넓은 분야에서 더 많은 소외된 분들을 대표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회로 찾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의원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 봅니다. 현재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격주에 한 번꼴로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자는 의미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법」, 노인틀니, 성인스케일링, 아동구강검진 등 전 국민 구강건강프로젝트를 실시하지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1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각종 단체의 직을 사임하면서 귀 협회의 이사직도 사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비록 이사로서 직접적인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치과 의사이자 변호사라는 보기 드문 이력을 소유하고 계신데, 정계에 발을 내딛게 되신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의사가 되길 원하셨던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치과대학에 입학했고,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보람된 생활이었지만,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

과 접하며 사회에 동참하고픈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과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시절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면서 정책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특히 빈곤층이나 여성들을 위한 무료소송이나 법률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해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를 직접 바로잡아 보고 싶은 강한 의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에이즈 감염인의 혈액으로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 복용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분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이 바로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소송입니다. 혈액제제에 문제가 있어 에이즈 감염이 발생한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약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교수님께서 당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였던 저를 찾게 되어서,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어린 환자들과 부모님을 대변해 단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자식이 혈우병을



저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과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일 것입니다. 특히 빈곤층이나 여성들을 위한 무료소송이나 법률상담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려는 과정에서 점액에 반영되지 못한 빈번히 추진되지 못했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런 선물을 바로잡아 보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않다 에이즈에 감염되어도 아이한테 '네가 이런 이런 병에 걸렸다'는 말을 못해줍니다. 알면 그때부터 아이 스스로가 사회에 못나가게 되니까요. 다른 형제에게도 알려지 못하고 살얼음판 걸듯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 사무실에 와서 할 때면 서로가 평평 울고 맙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신분을 나에게만은 완전히 믿고 노출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혼자서 1인 시위하는 것도 해보고 그동안 겪은 부모님들의 고초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 몇 양동이 는 흘렸을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재약화사라는 거대한 집단에 맞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무모한 도전에서 이제는 당당히 맞서는 '환자' 적 권리라는 개념으로 많이 성장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환자의 편을 들어주리라 꼭 믿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정부 부처의 예산 절감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고, 이는 조세 경감 정책과 함께 복지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가 어려우면 빈곤층과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은 몇 배가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연말, 2009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를 오히려 2만여 명이 나 줄었고,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를 축소하여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수당 및 저소득장애인 지원 예산을 500억 원 가까이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꾸준히 늘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빈곤층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 예산안 심의는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2010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복지예산이 축소되지 않



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많은 복지에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즈는 만성질환이면서 세계적인 감염성 질환으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UN이 주목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8년 말 기준으로 감염인이 6,120명이라고 집계하고 있지만, 에이즈 검사율이 낮은 우리나라 형편상 훨씬 많은 수의 감염인이 존재한다고 예상됩니다. 만약 감염인들이 자신의 질병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나간다면, 국가 전체적 비용발생이 줄어들고 감염인의 행복한 삶의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에이즈 지원프로그램은 일반인에 대한 홍보·교육예산이 전체 에이즈 예산의 68%에 이르는 등 감염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규 감염인에게 집중 상담하고 질병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지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일상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 질병 발생시기에는 동료 감염인에 의한 간병사업과 같은 치료프로그램,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에이즈환자 전문요양병원과 호스피스의료기관 등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감염인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기획되고 관리되어 져야 합니다. 이렇듯 감염인의 복지와 인권을 보호하면서, 감염인 지원 사업 모델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레드리본 독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임기 동안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 감소를 위한 담배규제정책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건강정보보호법 등을 발의하였고, 저출산 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값비싼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하는 법안도 금월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정책, 요양급여기준의 개선,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기피전공과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 뮤코다당증 치료제인 엘라프라제 등 희귀난치병 필수약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폐지, 리펀딩 제도의 도입 및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법 제정 등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서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단 한사람의 의견도 청취하고 존중하자, 그래서 문턱이 낮은 국회, 열린 마음으로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 라는 나침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4